4부 구체적인 지침

죄 죽이기 10편 그 죄와 실제로 싸우는 법 · 양심에 짐 지우기부터 첫 움직임 막기까지

4부 11장(144~157쪽)

> ❓ **심각한 건 알겠어. 그런데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해?**

🧭 흐름 한눈에

앞 편에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았다면, 오웬은 이제 손에 잡히는 지침 다섯 개를 내놓는다. 처음 두 지침은 마음의 자세를 잡는 일이다. 율법과 복음과 내가 받은 구체적인 은혜로 죄책을 양심에 지워 핑계를 막고, 그 죄의 권세에서 건져지기를 끊임없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나머지 세 지침은 싸움의 기술이다. 타고난 기질에 뿌리내린 죄는 그 토양을 걷어 내고, 죄가 올라타는 계기와 길목을 미리 막고, 죄가 처음 꿈틀대는 순간 단호하게 끊는다. 흐름은 '죄의 무게를 느끼는 마음'에서 '길을 막는 손'으로 나아간다. 이 모든 일은 고행이나 자책이 아니다. 양심을 엎드리게 하는 목적은 나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데 있고, 몸을 다스리는 어떤 수단도 성령께서 쓰실 때에만 힘이 있다.

• 지침 카드

📜 절별 정리

(★ = 오웬이 책 전체에서 거듭 기대는 구절)

📜 1. 지침 3의 틀: 원리가 아니라 실제 넘어진 일로 죄책을 지우라 (11장)

오웬은 나를 괴롭히는 죄의 죄책을 계속 떠올려 양심에 짐을 지우라고 한다. 죄책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죄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짐은 “죄에는 죄책이 따른다”는 일반적인 생각만으로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 죄가 실제로 터져 나오고 꿈틀댔던 순간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야 한다. 순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따른다. 일반적인 것(율법, 복음)에서 시작해 구체적인 것(내가 받은 인내, 회복, 섭리의 은혜)으로 내려간다. 이 일이 먼저 와야 하는 까닭은 이렇다. 양심이 죄책을 달랠 다른 진통제를 쥐고 있는 한, 영혼은 죄를 죽이는 일에 온 힘으로 달려들지 않는다.

1. 죄책을 '떠올려' 양심에 짐을 지우라
2. 원리보다 실제로 넘어진 장면을 떠올려라
3. 순서: 율법·복음 → 내가 받은 은혜
4. 다른 진통제가 있으면 싸우지 않는다
5. 목표는 자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림

> **시편 51:3**
> 양심이 이르러야 할 지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고백
>
>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 2. 율법으로 비추기: "나는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핑계에 답함 (11장)

첫 단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양심에 들이대는 일이다. 율법은 겉 행동만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예외 없이 요구한다. 그 앞에 내가 설 수 있는지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양심은 이렇게 핑계를 댄다. “나는 율법에서 해방됐으니 그 정죄는 나와 상관없어.” 오웬은 세 가지로 답한다. 첫째, 죽이지 않은 정욕을 몰래 품고 있는 동안에는 양심이 해방의 증거를 찾지 못한다. 둘째, 율법은 죄를 찾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임무를 받았으니,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는다. 셋째, 죄를 비추는 거울 노릇은 율법의 본래 일이다. 오웬은 많은 사람이 “율법은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해 판단과 의지까지 무너지고 결국 배교, 곧 신앙을

2. “해방됐다”는 말이 핑계가 될 수 있다
3. 죄를 품는 동안엔 자유의 증거가 없다
4. 율법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
5. 율법 무시가 배교의 문이 되어 왔다

> **시편 51:3**
> 핑계를 다 막고 죄를 시인한 다윗의 모범
>
>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 3. 복음으로 비추기: 내가 찌른 분을 바라보라 (11장)

다음은 내 정욕을 복음 앞으로 가져가는 일이다. 다만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죄책을 더 또렷이 보려는 것이다. 오웬은 내가 찌른 분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물으라고 한다.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피, 성령의 은혜에 대한 내 보답이 이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씻으려고 죽으셨고 성령께서 거처로 삼으신 이 마음을 내가 더럽히고 있지 않은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 성령을 날마다 근심하게 해도 되는가?” 복음은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을 배신한 죄의 무게를 드러낸다. 오웬은 이렇게 해도 양심이 조금도 녹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1. 복음은 진통제 이전에 거울이다
2. 죄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일
3. 성령이 사시는 마음을 더럽히는 일
4. 날마다 내 영혼에게 따져 물어라
5. 녹지 않는 양심은 위험 신호다

> **스가랴 12:10**
> “찌른 분을 바라보고 애통하라”는 표현의 배경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히브리서 2:3

이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하는 일에 대한 자기 추궁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에베소서 4:30

인치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죄의 무게임을 보여 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 4. 받은 은혜로 비추기: 인내, 회복, 섭리 (11장)

이제 대속과 칭의 같은 일반적인 복음의 은택에서 내려와, 주님이 바로 '나'에게 하신 일을 헤아려 보라고 한다. 첫째는 오래 참으심이다. 나는 약속하고 깨기를 되풀이했고, “이제 하나님도 지치셨다”고 스스로 결론 내린 적도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사랑의 초대장을 들고 찾아오셨다. 둘째는 회복의 은혜다. 기도의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거의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식었을 때, 하나님은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다. 셋째는 섭리의 은혜다. 곤경에서 건지시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신 일들이 모두 여기에 든다. 오웬은 양심이 재를 뒤집어쓰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말라고 한다. 짐을 지우는 재료가 결국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1. '나에게 하신 일'로 구체적으로 내려가라
2. 깨진 약속에도 다시 오신 인내를 보라
3. 식어 가던 나를 살린 회복을 기억하라
4. 섭리 속 건지심과 선물도 헤아려라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방향을 보여 줌

>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 5. 지침 4: 건짐 받기를 끊임없이 간절히 바라라 (11장)

죄의 무게를 깨달았다면, 다음은 그 죄의 권세에서 건져지기를 쉬지 않고 바라는 일이다. 세상일에서도 정말 원하는 사람은 수단을 부지런히 쓰고, 수단을 쓰지 않는 바람은 별 가치가 없다. 영적인 열망은 그보다 더 나아간다. 열망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는 그것으로 닮아 가게 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경건한 근심이 낳은 “간절한 소원”을 은혜로 보았고, 자기 안에 남은 죄를 두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부르짖었다. 내재하는 죄 일반 때문에도 사도가 이렇게 부르짖었다면, 특정한 정욕이 날뛰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간절해야 하겠는가. 간절함은 마음을 깨어 있게 하고, 기도에 생명을 주며, 믿음과 소망을 움직인다.

1. 지금 상태에 그럭저럭 만족하지 마라
2. 영적인 열망은 그 자체가 은혜다
3. 열망은 영혼을 바라는 것으로 닮게 한다
4. 간절함은 기도의 생명이다
5. 바울처럼, 다윗처럼 부르짖어라

고린도후서 7:11

경건한 근심이 낳는 '간절한 소원'이 은혜임

>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남아 있는 죄에서 건져지기를 바라는 사도의 부르짖음(로마서 7:18-25의 결론)

데살로니가전서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 간절함이 그 기도의 생명

>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편 38:9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다윗

>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42:1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벗어나려고 간절하게 열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6. 지침 5 (1): 기질 탓은 죄책을 줄이지 못한다 (11장)

어떤 죄는 타고난 체질과 성격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내 기질 자체가 그 죄를 키운다. 오웬은 사람마다 특정한 죄에 끌리는 소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두 가지를 분명히 한다. 첫째, 기질에서 나온 죄라고 죄책이 면제되거나 줄지 않는다. "원래 성격이 그래"는 신자가 기댈 말이 아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고 고백했지만, 그것을 핑계가 아니라 더 낮아질 이유로 여겼다. 둘째, 이런 기질은 죄와 사탄에게 큰 이점을 준다. 그러므로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2. 그러나 “원래 그래”는 죄책을 못 줄인다
3. 다윗은 타고난 죄를 낮아질 이유로 봤다
4. 기질은 죄와 사탄에게 이점을 준다
5. 그래서 남보다 더 깨어 있어야 한다

> **시편 51:5**
> 타고난 죄성이 죄책을 덜지 않고 오히려 더한다는 다윗의 고백
>
>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 7. 지침 5 (2): 몸을 쳐 복종시키라, 로마 가톨릭식 고행과는 다르게 (11장) ^

기질에 뿌리내린 죄에는 바울이 말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방법이 특히 맞다고 오웬은 말한다. 정욕이 자라는 토양을 걷어 내어 뿌리를 시들게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죄 죽이기의 중심을 사람이 만든 의식과 고해, 보속을 위한 고행에 두었다. 보속은 죄의 대가를 내가 채우려고 몸을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오웬은 금식이나 철야 같은 수단을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두 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나는 몸을 약하게 하는 일을 그 자체로 선행이나 죄 죽이기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 겉 규칙을 경건으로 삼는 '육체의 규례' 아래로 돌아가고, 몸과 마음만 상한다. 다른 하나는 그 수단에 죄를 죽이는 힘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런 힘이 수단에 있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성령 없이 죄를 죽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수단은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이다.

1. 몸을 쳐 복종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
2. 목표는 정욕이 자라는 토양 걷어내기
3. 고행 자체를 선행으로 보면 율법주의다
4. 금식·철야는 도구, 능력은 성령께 있다
5.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에 기대어 쓰라

> **고린도전서 9:27**

>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 **로마서 8:13**

시리즈의 토대 구절. 죽이는 힘이 '성령으로써'임을 다시 확인함(이 장에서 오웬이 직접 인용하지는 않으나, 수단과 능력을 가르는 근거와 같은 원리)

📜 8. 지침 6: 죄가 올라타는 계기와 길목을 막으라 (11장)

정욕은 늘 어떤 계기나 유리한 조건을 등에 업고 힘을 쓴다. 그러니 그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생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신 명령의 일부다. 다윗도 자기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켰다고 했다. 내 죄가 어떤 길로 오고, 어떤 사람이나 상황과 함께 다니며, 어떤 생각과 기분을 타고 오르는지 살펴서 막아야 한다. 몸이 아플 때는 해로운 음식과 날씨를 꼼꼼히 피하면서, 영혼의 일은 덜 조심할 이유가 없다. 오웬은 하사엘의 예를 든다. 엘리사가 그가 저지를 잔혹한 일을 미리 말하자 하사엘은 펄쩍 뛰었다. 하지만 그 길로 이끄는 자리에 겁 없이 들어서는 사람의 “나는 절대 안 그래”에는 근거가 없다.

1. 죄는 늘 어떤 계기를 타고 올라온다
2. 내 죄의 시간·장소·사람·기분을 파악
3. 몸보다 영혼을 더 조심하라
4. 유혹에 겁 없으면 죄에도 겁 없어진다
5. “나는 절대 안 그래”는 근거가 없다

마가복음 13:37

“깨어 있으라”. 모든 신자에게 주신 경계의 명령

>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길목을 지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시편 18:23

자기 죄악의 길목을 스스로 막은 다윗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열왕기하 8:12-13

장담하던 하사엘. 계기에 뛰어드는 자는 자신을 장담할 수 없음

12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앎이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메치며 아이 밴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13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 9. 지침 7: 죄가 잉태되는 첫 움직임을 막으라 (11장)

정욕이 처음 낌새를 보이는 순간 강하게 막아 아주 작은 발판도 내주지 말라는 지침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아"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한 걸음을 허락하면 두 번째 걸음도 딛게 된다. 죄는 수로의 물과 같아서 한번 흘러나오면 제 길을 가고, 막으면 돌아갈 길을 찾는다.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는다고 했다. 그러니 생각이 흐트러지기 시작할 때, 그 죄가 끝까지 갔을 때 느낄 분노와 같은 분노로 막으라고 오웬은 말한다. 처음에 단호하지 않으면, 죄는 먼저 감정에 발판을 얻어 내가 그것을 즐기게 하고, 다음에는 생각에 발판을 얻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

1. "여기까지만"은 통하지 않는다

3. 욕심→죄→사망, 처음에 끊어라

4. 끝을 떠올린 분노로 시작을 막아라

5. 감정이 즐기면 생각이 죄를 가볍게 본다

> ★ 야고보서 1:14-15
>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니, 첫 단계에서 막아야 함

"죄에게 경계선을 정해주어서 그 이상은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착각과 진짜 비교판**

이것은 죄 죽이기가 아니다	이것이 죄 죽이기다
"나는 율법에서 해방됐으니 괴로워할 필요 없어"라며 죄책을 덮어 둔다	율법과 복음과 내가 받은 은혜로 양심을 비추어, 주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핑계를 막는다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며 지금 상태에 그럭저럭 만족한다	그 죄의 권세에서 건져지기를 쉬지 않고 간절히 바라며 부르짖는다
"원래 성격이 그래" 하며 기질 탓을 하거나, 반대로 몸을 괴롭히는 고행으로 공로를 쌓는다	기질을 더 깨어 있을 이유로 삼고, 성령께 기대어 정욕의 토양을 걷어 내는 수단으로 몸을 쳐 복종시킨다
"나는 안 넘어가" 하며 죄가 올라타는 계기를 그대로 둔다	내 죄의 시간과 장소, 사람과 기분을 알아내어 길목을 미리 막는다
"여기까지만" 하며 죄에게 선을 그어 준다	첫 생각, 첫 움직임에서 끝을 떠올리며 단호하게 끊는다

왼쪽 칸의 공통점은 죄와 '협상'한다는 것이다. 오른쪽 칸은 의지력으로 버티는 고행이 아니다. 내가 찌르 부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쓰시는 수단으로 길을 막는 일이다. 짐을 지우는 목적도, 길목을 막는 목적도 결국 나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붙들어 두는 데 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 죽이기
내 안에 남은 죄의 뿌리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약하게 만들어 끝내 이기는 일.

내재하는 죄
거듭난 신자 안에도 아직 남아서 마음을 죄 쪽으로 끌어당기는 죄의 성향.

정욕(욕망)
특정한 죄를 향해 마음을 끌고 가는 강한 욕망으로,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분노·시기·교만·게으름도 포함한다.

양심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내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고 고발하거나 변호하는 마음속 재판정.

죄책
내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신자 안에 거처를 정하고 머무시며 일하시는 것.

은혜의 수단
말씀·기도·성례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정하신 통로로, 그 자체에 힘이 있지 않고 성령께서 쓰실 때 능력이 된다.

배교
신앙을 고백하던 사람이 진리와 믿음에서 떠나는 것

타고난 성격과 체질로, 그 안에 특정한 죄에 쉽게 끌리는 소질이 있을 수 있다.

보속·고행 / 육체의 규례

죄의 대가를 내가 채우려고 몸을 괴롭히는 일, 그리고 겉으로 몸을 다스리는 규칙 자체를 경건으로 여기는 율법주의적 태도.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먼저 죄책을 피하지 말고 율법과 복음과 내가 받은 은혜 앞에서 양심이 주님께 엎드리게 하라.
- 그 죄에서 건져지기를 간절히 바라라. 그 열망 자체가 이미 은혜다.
- 기질을 핑계 삼지 말고, 성령께 기대어 정욕의 토양을 걷어 내라. 수단은 도구이고 능력은 성령께 있다.
- 죄가 올라타는 길목을 미리 막고, 첫 움직임에서 단호하게 끊어라.
- 이 싸움은 고행도 자책도 아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에 응답하는 일이다.

📚 이 편의 장별 정리 노트

- 죄 죽이기 · 11장 죄를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 (3)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